

지역 매아리

부안군, 환경미화원 사칭 주의

부안군 최근 부안을 및 계곡면 음식점을 대상으로 군청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회식을 발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업소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은 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근무자는 총 50명으로 읍·면에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근무기강 확립 및 청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내 업소를 상대로 한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요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품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근 파출소나 군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위기의 천일염 산업 주민역량 강화로 활로 찾아

고창군 천일염 산업 관계자들이 신안군을 찾아 국내 최대 염전을 둘러보고, 고창민의 천일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2019 고창갯벌 주민학교' 참가자들이 지난 11일 신안군 태평염전을 찾아 고창군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람사르갯창갯벌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고창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생산자, 가공 및 유통 업체, 판매자, 해리농협 등 천일염 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군 태평염전의 6차 산업화 단지과 천일염 스마트팜 시범지구 현장을 돌아보고 전문가 강연을 들었다.

특히 '지능형 무인염전' 시범 지구 견학에선 천일염 산업의 큰 결실물도 떠오른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 마련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밖에 소금 레스토랑과 카페, 염전 체험장, 캐러밴 운영 등의 고부가 3차 서비스 산업 활성화 모델의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 주민, 관계자들이 고창의 천일염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고창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한 피항 시설 구축

고창군, 내죽도 방파제 연장 조기 완료... 계획보다 7개월 빨라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의 방파제가 길어져 어선들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내죽도 방파제 연장(180m→207m) 사업이 완료되면서 주민 어업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 군은 여름철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사업 시간을 앞당겼다.

내죽도 방파제 정비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간 기존방파제를 27m 추가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기존방파제 15m연장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잔여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해 나머지 12m연장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대비시키고, 정박할 수 있는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제4차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사업비 22억원을 전액국비로 투입해 복지회관 건립, 방파제 정비,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바다둘레길 정비, 저온창고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의 방파제가 길어져 어선들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졌다.

건립 등 7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내죽도 공중화

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어민소득 증대와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내죽도 공중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사계절 토탈관광 정읍' 위상 다진다

미래전략사업단 정례브리핑 가져

정읍시의 미래 핵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단이 최근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시가 올해부터 매일 둘째, 넷째 주 가져오고 있는 정례브리핑 일환. 시는 국·단·실과소장(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 주제로 시정방향과 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인들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철도산업농공단지 조성과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사계절 토탈관광 활성화, Eo 축산 청정 정읍 조성 등 관한 3개과 주요 업무를 브리핑했다.

유 단장은 신정동 3개 국책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분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복흡입안전성연구본부)와 이와 연계 조성한 첨단과 확산단지, 관련 연구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며 정읍드론페스티벌(5.4.~5.5.)과 내장산캠핑대회(5.17.~5.18.)를 소개했다. 더불어 내장산 문화광장에 조성 예정인 어드벤처



역특화산업 혁신전략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오는 29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주)원시스 전동차 생산 공장과 관련, 2020년 3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방문의 해 운영과 사계절 토탈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구상도 소상하게 밝혔다. 유 단장은 "관광자원 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드론페스티벌 등 특별한 이벤트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정읍드론페스티벌(5.4.~5.5.)과 내장산캠핑대회(5.17.~5.18.)를 소개했다. 더불어 내장산 문화광장에 조성 예정인 어드벤처

(adventure)복합놀이시설(이하 복합놀이시설)조성 사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전년도 안내했다. 탄탄한 관광SOC를 구축하고 문화와 역사, 내장산과 구절초 등 수려한 자연경관, 다양한 먹거리 등을 엮은 고부가가치의 상품 개발에 주력해 '사계절 토탈관광 정읍'의 확실한 위상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유 단장은 이어 "축산의 부정적인 문제라면 분뇨처리와 가축질병, 축산 악취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예코축산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며 10년 간 2개 분야 6개 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코축산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축산 현안도 소상하게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은 물론 추진 과정과 알리면서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발 인천공항버스 내달 2일 전면 중단

여행 전 이동 방법 확인 필요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내달 2일부터 정읍발 인천공항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인천공항 운행 버스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정읍→전주혁신도시→인천공항을 하루 6회 운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정읍발 인천공항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등은 다른 이동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정읍에서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가는 방법이 있다.

KTX로 서울역까지 이동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KTX로 광명역까지 이동해 인천공항 운행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전주에서 이용 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12회/일, 공항버스정류소에서 27회/일 운행되고 있는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여행 전 이동 방법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품'

작년보다 더 풍성한 마실축제 내달 4~6일 개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부안마실축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부안의 대표축제는 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장 이석기)의 공식 기자간담회가 지난 12일(금) 오전 11시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이석기 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군 관계자, 부안군 출입기자 20여명이 참석하여 부안마실축제의 전체 프로그램, 각종 전시, 판매, 먹거리 등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부안마실축제는 따스한 봄날 남녀노소 누구나 삶의 여유를 찾아 떠나는 마실여행을 표방한다. 올봄 부안으로 떠나는 마실여행은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볼거리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부안만의 색깔이 있는 특산물을 바탕으로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축제이다. 부안마실축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16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특히 축제기간 중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은 60만명에 육박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도시 인센티브(1억원)까지 확보,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부안마실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www.buanma-sil.com)를 참고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

정읍시가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운전자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정읍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취소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